

광주·전남 음압병상 14개뿐... 확산 대비 병상 확보 시급

(코로나19)

126번 환자 아내 양성으로 확진 확진자 증가세에 병상 부족 우려 일반병실에 음압기 설치 등 검토

광주에서도 신천지 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치료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두 번째 사망자가 음압 병상 포화로 먼 거리를 이동하다 숨진 것으로 드러나, 환자 급증을 대비한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26번 환자 A씨의 아내(31·광주 서구)가 양성으로 확진됐다. 현재 치료 중인 광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7명이다. 보건 당국은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30대 남성인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거나 교리를 공부하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6번째 확진 환자인 40대 여성이 4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국가지정 격리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출입이 통제된 전남대병원 격리병실 입구. /뉴스

확진자 7명 중 4명의 접촉자 수가 176명으로 추산되고, 교리 공부에도 다 른 신도 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 지면서 '다수 전파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음압 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격리 병상(1인실 기준)'은 광주에 12개뿐 이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 각 7개·5개

가 있다. 민간 병상을 포함하면 16개다. 22일 오전 8시 기준 광주 음압 병상 가동률은 66.7%(확진·의심 환자 수용)로 집계됐다.

22개 시·군인 전남의 국가 지정 음압 병상도 국립목포병원에 2개(1인실)만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 기준이 강화되기 전 건립돼 의료진·환자들의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

4인실도 2개 있지만, 격리 환자 치료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목포병원에는 감염내과 전문의도 없다.

만약 코로나19환자가 급증하거나 유증상자가 동시에 몰리면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도 크다.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경북에서는 병상 부족에 따른 사망자도 나왔다.

지난 21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환자는 대구·경북 음압 병상이 남아 있지 않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직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감염내과·예방의학 전문의들은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낮은 대신 전파 속도가 빠르다. 거점마다 충분한 음압 병상 확보, 선별 진료소 확대, 전문 의

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시설·인력을 두루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단기간에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 병상 확보에 나섰다. 대학병원 1인실 이용 또는 일반 병동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또 공공의료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곳을 비운 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음압 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공기 중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두는 특수 격리 병실을 뜻한다.

전국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은 161실 198병상(민간 포함 시 755병실 1027병상)이다. 전날 오전 기준 57.8%가 확진·의심 환자를 수용 중이다. 대구·경북·충북·부산 병상은 꼭 차 환자를 받을 수 없다.

/광주=김태수 기자·전남=양수영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위기극복 함께” 전남 담양소방서, 긴급 헌혈 나서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까지 동참

전남 담양소방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의 해소를 위해 사랑의 헌혈에 적극 동참, 위기 극복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한 달 간 전국에서 총 206개 단체가 헌혈 계획을 취소했으며, 헌혈 보유량 적정치는 5일분을 크게 밑도는 3일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담양소방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 운동에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의용소방대원까지 동참해 사랑의 헌혈을 실천했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데,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곡성군, 주민소득 지원대상자 선정... 6.8억 투입

1인당 5000만원, 이자율 1%

곡성군은 2020년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소득 향상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 2년 거치 일시 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

된다. 시설자금은 1억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자율은 모두 1%다.

곡성군의 경우 상하반기 각각 8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 결과를 분야별로는 축산 6농가, 농지 구입 2농가, 원예 1농가 과수 1농가로 축산 분야가 가장 많았다. 총 지원 결정 금액은 68,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남=김태수 기자

“순천완주 사매2터널 복구에 약 40일 필요”

한국도로공사 비용 약 37억 소요
북남원·서남원IC 등 우회 당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터널 사고로 차단됐던 제27호선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완주방향) 복구에 4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 발생한 터널화재 사고로 입구에서 사고지점(70m)까지 폭열로 터널 내 콘크리트 상부가 크게 손상되고 철근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터널 조명(311개), CCTV(1개), 광케이블 등 부대시설도 손상을 입었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부터 이틀간 전문가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터널 내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내었다.

복구작업은 파손된 콘크리트의 강판



지난 17일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에서 빙판길 사고로 추정되는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

(파형) 및 콘크리트 보강공사와 전기·포장·통신 등 부대공사 순서로 진행되며, 비용은 약 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구에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완주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북남원IC, 서남원IC 또는 남원IC로 진출하여 국도 17호선 등을 통해 오수IC로 우회하면 된다.

다. 남원분기점 이남(순천, 여수, 광양 등)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제25호선 호남고속도로, 제12호선 광주대구고속도로 등으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빠른 복구를 통해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

“LPG,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쓰세요”

전남도 LPG 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 완료마을 LPG 절반가격 이용

전남도가 올해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 가스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계량기를 설치해 LPG를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7개 마을이 늘어나 13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2개였던 도 자체사업을 올해는 10개까지 대폭 확대해 총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 마을은 3개

다. 보급대상 마을은 매년 8~9월 시군을 통해 신청 받아 사업 적합도, 탱크부지 확보,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LPG를 도매업체로부터 대량(벌크단위)으로 공급받아 50% 이상 가격이 저렴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농어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형 SOC사업 확대 차원에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상주시 토양개량제 7966t 살포

상주시는 올해 토양개량제 7966t을 공동살포단을 통해 살포하기로 했다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물량 공급방법 등을 결정하고, 전체 공급물량 1만1207t(규산 6448 석회 3128 패화석 1631) 대비 71% 정도인 7966t(면적 883ha)을 지역농협을 통해 적기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대상은 함창읍, 사벌곡면, 중동면,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내서면이다. 이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인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토양개량제(규산·석회패화석)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2 | 해질 / 18:20

2월 24일(월)
음력 : 2월 1일

수도권 날씨 **2 ~ 1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2/12, 동두천 -1/13, 가평 -3/11, 파주 -3/10, 서울 2/13, 양평 -3/13, 인천 3/11, 수원 2/13, 용인 2/13, 평택 -1/14, 백령도 6/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